“권력 놓고 이성민과 연기 호흡 짜릿”

영화 ‘대외비’ 조진웅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 역할
대외비 문서 무기로 금배지 쟁탈전
1992년 배경 찾으려 전국서 촬영
여수와 거제 매력에 푹 빠져

영화 ‘대외비’ 속 전해웅(조진웅 분)은 116분의 러닝타임 동안 쉴 새 없이 변화한다. 극 초반 그는 정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희망이 가득한 모습이다. 그러나 수많은 감정의 진폭을 겪고 텅 비어버린 그의 눈동자에는 권력에 대한 야욕만이 들어차 있다.

해웅을 연기한 배우 조진웅은 23일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인물이 상황을 끌고 가는 작업에 매력을 느낀다”며 “처한 상황이 격변하는 게 훨씬 재밌고, 이번 시나리오도 그런 부분에 끌렸다”고 말했다.

‘대외비’는 1992년 부산, 만년 국회의원 후보였던 해웅이 하루아침에 공천 무산 통보를 받으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영문도 모른 채 부산 정치판의 실세 순태(이성민)의 눈 밖에 난 해웅은 혼자 힘으로 ‘금배지’를 갖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조진웅은 “생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듯이 뒤로 갈 데가 없었다. 죽더라도 (순태에게) 상처는 내겠다는 근성으로 버틴 것”이라며 “어차피 낭떠러지에 있는 사람이라 마땅히 갈 곳이 없는 지점이 저랑 비슷하다”고 했다.

“제가 뭘 하겠어요. 나이도 있고, 취직할 수도 없고. 갈 데가 없죠. 저는 작업할 때 항상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야지. 그냥 한 번 죽자’라는 생각을 해요. 작품을 한다는 건 외줄을 어떻게 재밌게 타느냐인데, 방심하거나 삐끗하면 떨어지잖아요. 그때 후회하고 울고불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극의 중심에 해웅과 순태의 갈등이 놓여있는 만큼 두 사람이 마주하는 장면은 영화의 백미다. 해당 장면에서 해웅의 얼굴에는 땀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일각에서는 ‘조진웅은 땀까지 연기해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다.

“그때가 여름이기도 했어요. 몰입하니까 (얼굴이) 벌게지고 열이 막 오르더라고요. 때마침 딱 땀이 흘러내려 줬어요. 잘 얻어걸린 거죠. 뭐. (웃음)”

그는 “전해웅이란 캐릭터가 보시기엔 처절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신나게 연기했다”면서 그럴 수 있었던 데는 선배 배우인 이성민의 역할이 컸다고 했다.

“성민이 형이랑 ‘열혈 장사꾼’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조연 배우로 처음 만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전혀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는 거죠. 코앞에서 연기를 하는데 해웅으로서 빠져들게 하는 그런 에너지를 주시더라고요. 리드를 잘 해주셔서 저는 더 신명 나게 놀 수 있었던 거죠.”

이어 “그런 걸 느낄 때 너무너무 재밌다”며 연기에 대한 애정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대외비’의 배경인 부산은 조진웅의 고향이기도 하다. 그는 상기된 얼굴로 “부산은 항상 가고 싶은 곳이니까 (촬영할 때) 설렌다”고 했다. 또 1992년이라는 시대상을 보여줄 만한 장소를 찾기 위해 부산 외 다양한 지역을 방문했다면서 “여수와 거제를 정말 사랑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진웅은 해웅처럼 국회의원을 해볼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다만 ‘정의로움’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를 가졌다며 생각을 밝혔다.

“이번 작품을 하면서 진지하게 저에 대한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누가 (드라마 ‘시그널’ 속) 이재한처럼 정의롭냐고 하면 항상 아니라고 답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이 사람인데 강자한테 약하고 그렇다고요. 근데 ‘대외비’에서는 만약 이런 상황이 온다면 그러지 말자 싶었어요. 내가 손해 보더라도 악에 무릎을 꿇거나 힘에 좌절하지 말자. 그것만 좀 지키자 생각했어요. 영화 속 캐릭터에게 참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요.” /연합뉴스

JMS 부터 오대양 사건까지…넷플 다큐 ‘나는 신이다’

다음달 3일 공개

넷플릭스는 자신을 ‘신’이라 부르며 사회를 뒤흔든 사람들을 다룬 다큐멘터리 시리즈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내달 3일 공개한다고 23일 밝혔다. ‘나는 신이다’는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8부작 시리즈다.

자신을 신이라고 부르며 사회를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면밀히 파헤친다.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진실과 최초 증언도 담아냈다.

작품을 연출한 조성현 PD는 “2023년의 대한민국에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100명이 넘는다. ‘나는 신이다’는 서로 다른 메시아를 만났지만 놀라울 만큼 유사한 피해를 겪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 피해자들이 신으로 받들었던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인지, 그리고 우리 사회는 왜 여전히 같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시청자들께 남길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넷플릭스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천우희

“스마트폰 잃어버린 그 후… 누구나 공감할 내용 담겼죠”

넷플릭스 영화 부문 세계 2위
연쇄살인마가 입수한 스마트폰
문제 해결해 가는 여성 이야기
“내 실생활 모습 많이 녹여내”

“현시대를 사는 20~30대 여성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주체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이나 독립적인 점에서도 동질감을 느꼈고요.”

영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속 이나미는 소셜미디어(SNS)를 즐겨 하는 스타트업 회사 마케터다. 22일 종로구 소격동 한 카페에서 만난 배우 천우희는 평범한 회사원인 나미에 “다른 작품들보다도 제 실제 모습을 많이 녹여냈다”고 말했다.

“김태준 감독님께서 저를 캐스팅하기도 전에 거의 ‘덕질’에 가까운 수집력과 정보력을 보여주셨어요. 나미의 생일도 제 실제 생일이고, 저랑 친한 김예원 배우를 친구 역할로 캐스팅해주시기도 했고요. (역할에) 스며들게끔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덕분에 더 편하게 연기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웠죠.”

나미가 술에 취해 탄 버스에서 떨어뜨린 스마트폰은 연쇄살인마 우준영(임시완 분)의 손에 들어간다. 준영은 휴대폰을 통해 나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계획적으로 접근해온다.

천우희는 “나미라는 인물이 꽤 매력적이라고 느꼈다”고 했다.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방식이 맘에 들었어요. 평범한 인물이지만 본인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 하잖아요. 저는 나미가 형사들에게 하는 ‘평생 지켜줄 수 있으세요?’란 대사가 되게 와닿았거든요. 결국은 자신을 스스로 지켜내는 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또 이 작품을 통해 “연기하는 재미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작품에 참여한 계기를 설명했다.

“초반에는 생활 연기를 보여줄 수 있고, 후반에서는 극적인 감정 연기까지 다채롭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좋았어요. 이야기를 쭉 끌고 가는 안내자가 되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임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날 법한 이야기로 공포심을 자극하는 이 작품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공개 이틀 만에 넷플릭스 영화 부문 세계 2위에 오른 뒤 3일 연속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이에 천우희는 “한시름 놨다”며 웃어 보였다. 그러면서 “한국 정서가 많이 녹아있긴 하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본인에게 대입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는 (휴대폰을) 잃어버리거나 잃어버릴 뻔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정말 극한의 불안감을 느끼고요. 스마트폰은 기계일 뿐인데도 자기 자신과 동일화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작품 찍고 경각심이 들어서 비밀번호를 한번 다 바꿨어요.”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를 통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에 처음 참여한 그는 “SNS 팔로워 수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걸 보면서 반응을 체감하고 있다”며 “(영화관) 개봉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낀다”고 말했다.

“아쉬운 점도 있죠. 연기나 연출적으로 세심하게 조율했던 부분이 큰 스크린에서 확실히 잘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이 본인의 공간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건 정말 큰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를 다 가질 순 없죠. 일단은 많이 봐주시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주시는 게 감사하고 신기하기도 합니다.” /연합뉴스